봄바람 불어도 기지개 못 켜는 멜로극

‘반의반’ ‘어서와’ 1%대 고전 방송 첫주만에 시청률 반토막 “납득 안 가니 몰입이 안 돼”

‘반의반’

‘어서와’

지난달 동시에 방송을 시작해 방영 2주차를 막 지나간 tvN 월화극 ‘반의반’과 KBS 2TV 수목극 ‘어서와’가 1%대 시청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뜻한 봄기운을 타고 안방극장에 찾아온 멜로극들이지만, 드라마 자체의 빈약한 완성도 때문에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0시 방송한 ‘어서와’ 7회와 8회 시청률은 각각 1.5%, 1.7%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0.1%포인트씩 하락한 수치다.

지난달 25일 첫 방송에서 3.6%~2.8%를 기록한 ‘어서와’는 이튿날 방송된 3, 4회에서 각각 1.6%, 1.8%를 기록했다.

방송 첫 주만에 시청률이 1%대로 떨어지는 현상은 KBS 수목드라마의 암흑기라고 불린 2018년에도 없던 일이다.

‘어서와’의 저조한 시청률은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 등 ‘미스터트롯’ 열기를 이어가는 후속 프로그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사랑의 콜센타’ 시청률은 23.1%로 집계됐다.

그러나 혹평 일색이던 ‘포레스트’가 ‘미스터트롯’과 동시간대에 방송되면서도 최저시청률은 2.6%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어서와’ 자체의 문제도 크다는 지적이 인다.

원작 웹툰은 만화라기보단 일러스트에 가까울 정도로 여백이 많은 작품이다. 웹툰 ‘어서와’는 주인공이 겪는 소소한 일상이 고양이 홍조로 조금씩 변화하는 내용을 담은 캠퍼스극으로, 고아라 작가의 따뜻한 그림체와 감성이 장점이다. 다만 드라마틱한 사건이 거의 없어 적극적인 각색이 필요한 작품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각색이 원작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팬들 기대엔 못 미친다는 것이다. 드라마는 주인공이 고양이와 정서적 교류를 쌓아나가는 대신 짝사랑남과의 오해를 푸는 데 집중한다. 영상화를 위해 새로운 설정을 추가하는 것은 창작자의 자유일 수 있지만, ‘어서와’의 각색은 주인공을 뒤바꾸는 수준이다.

연출도 원작의 강점을 못 살리기는 마찬가지다. 1회에서 고양이 홍조가 사람으로 변한 뒤 침대 밑에서 솔아의 브래지어를 움켜쥐는 장면은 흡사 스릴러를 보는 듯해 원작 고유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tvN ‘반의반’ 또한 연일 최저 시청률을 경신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3일 1회 2.4%에서 시작한 ‘반의반’은 2회 2.1%, 3회 1.5%를 기록하며 거푸 뒷걸음질 치더니 급기야 4회에서 1.3%를 기록하고 말았다.

적지 않은 시청자가 드라마의 줄거리가 지나치게 복잡해 몰입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등장인물 간 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인물들이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는 메인 포스터처럼 하원(정해인 분)과 지수(박주현), 하원과 한서우(채수빈), 지수와 강인욱(김성규), 지수와 한서우는 오해와 착각으로 맺어졌거나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있는 관계다. 여기에 하원을 후원한 외교관 손녀이자 녹음실 관리자인 문순호(이하나)까지 넣으면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이라는 소재가 더해진다. AI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하원은 죽은 지수 목소리를 넣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AI가 아직 보편화하지 않은 오늘날 보기엔 어색하고, 기억과 사랑에 대한 고찰을 담기엔 작위적이다.

어느 장면이나 ‘일시정지’ 해도 한 편의 그림이 되는 화면은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 싶을 만큼 예쁘다. 그러나 이 예쁜 그림을 꿰어주는 서사의 개연성은 부족한 편이다. 눈 덮인 노르웨이 숲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청량해지지만, 서울에 있는 지수가 충동적으로 향하는 목적지가 되는 순간 우스워진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드라마가 디테일은 좋지만, 전체 그림이 안 드러나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며 “시청자들로선 납득이 안 가서 몰입이 안 될 수 있다. 줄거리를 따라가는 대신 설정, 상황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감상 방법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연합뉴스

코로나로 팬사인회 없어지자 가수들 영상통화·홈 라이브 팬서비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수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요계 행사가 ‘올스톱’ 되다시피 하면서 가수들이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콘서트, 팬미팅, 음악 방송 등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진 팬들을 위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없으면서도 가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팬 서비스를 시도하는 것이다.

최근 솔로 앨범을 발매한 보이그룹 엑소 수호는 지난 2일과 4일 두 차례 팬 사인회를 영상 통화를 이용해 열었다.

‘비디오 콜 이벤트’라 명명한 이 팬 사인회는 수호 앨범을 구매한 사람 중 당첨된 사람에게 수호가 영상통화를 걸어 2분간 대화를 나누고, 이들의 집으로 사인 CD를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수호와 영상통화를 한 팬들은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속속 올려 ‘내 가수’(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와의 통화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통화 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제 팬 사인회보다 낫다는 평도 나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팬 사인회 등이 전무해진 상황에서 수호와 일대일로 말할 기회가 생겨 팬들 반응이 좋다”면서 “팬들은 가수와 직접 만나는 행사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 팬 사인회 대안으로 이런 형태 팬 사인회를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호뿐만 아니라 걸그룹 구구단 세정, 신인 보이그룹 MCND도 최근 화상 팬 사인회를 열었다.

소셜미디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집에서 하는 공연을 보여주는 일명 ‘홈 라이브’도 활발하다.

큰 공연장에서 여는 콘서트와 달리 채팅창에 올라오는 댓글로 팬들 반응을 살피고 신청 곡도 받는다.

팬들 입장에선 가수가 자기 집에서 소탈한 모습으로 조용히 노래를 들려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룹 십센치 권정열은 지난달 20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폰서트’(휴대폰과 콘서트를 합친 말)를 열었다.

이날 그는 콜드플레이 ‘픽스 유’(Fix You), 십센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등을 기타를 치며 불렀다.

권정열은 “제가 선물할 수 있는 작은 응원이지만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음 공연 주자로 밴드 소란 보컬 고영배를 지목하기도 했다.

헨리는 지난 27일 ‘헨리 쌩쑈’라는 이름의 공연을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선보였다.

그는 “좋은 공연도 보러 가고 싶고 놀러 나가고 싶은 마음을 안다. 그래서 헨님(헨리 팬)이들 집으로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며 ‘너만 생각해’, ‘셰이프 오브 유’(Shape Of You) 등 6곡을 자신의 방에서 불렀다. 공연 동안 바이올린을 켜고 키보드를 연주하기도 했다.

한편 보이그룹 뉴이스트와 세븐틴은 국내외 영향력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독려한다.

이들은 지난 2일 기존 그룹 로고와 다른 새 로고를 공식 SNS에 공개했다.

세븐틴 로고는 배치된 도형들을 서로 떨어뜨려 놨고, 뉴이스트는 영문 표기명인 ‘NU’EST’에서 따옴표를 7개 더 배치해 ‘NU’와 ‘EST’의 사이를 멀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생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초청 제1차〉	10 좋은아침
10	00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토론 〈초청 제1차〉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제보자들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카토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산구갑 후보자 토론회	55 닥터 365
2	00 제21대 총선 후보 법정토론 및 비초청연설 〈광주서갑 후보 토론 연설〉			00 뉴스브리핑
3	50 야생여정 플러스(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대화의 희열 스페셜 〈리아킴 편〉	00 5 MBC 뉴스 30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건강한 집 세계의 에코하우스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50 제21대 총선방송연설 정의당 5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우아한 모녀	35 MBC 뉴스데스크	4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연설-양향자(민주당) 50 SBS 8 뉴스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0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35 KBC 8 뉴스 4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연설-권세도(무소속)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0 아무도 모른다
10	00 가요무대	00 계약우정	05 스트레이트	
11	00 더 라이브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개는 훌륭하다	00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0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5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네트워크특선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출동! 슈퍼윙스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픽시
09:30 페파 피그
09:4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1~2부
12:00 EBS 정오뉴스
12:1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3부
13:50 ABU 어린이 드라마 특선
14:40 마샤와 곰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1)(재)
15:0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10 꼬마버스 타요(재)
15: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15:40 뽀롱뽀롱 뽀로로(재)
15:5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16:10 픽시(재)
16:25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출동! 슈퍼윙스(재)
17:35 페파 피그(재)
17:40 뽀로로와 노래해요
17:45 세미와 매직큐브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형사 가제트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19:45 자이언트 펭TV
20:00 세계의 눈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겨울 동화, 중국 신장웨이우얼 파키스탄 -설국으로 가는 길〉
21:30 한국기행 〈기운차다, 봄 1부 주꾸미가 돌아왔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0 야생의 세렝게티
23:30 경이로운 지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6일(음 3월 14일 己卯)

☎ 010-9790-8237

子 36년생 보류 한다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48년생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니 잘 활용하자. 60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변수를 안고 있다. 72년생 상대에게 먼저 배려한다면 종국적으로 따르리라. 84년생 선택을 잘 한다면 실리를 취하게 되는 본원이 된다. 96년생 정석대로만 행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6, 96

丑 37년생 잘만 활용한다면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 49년생 외관이 좋다면 실속도 있으리라. 61년생 뿌린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이루게 되리라. 73년생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속 되었을 때 효과가 커진다. 85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구도이다. 97년생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근간을 이루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2, 62

寅 38년생 뜻은 좋지만 현실적인 한계 앞에서 노심초사할 수다. 50년생 요동을 치더라도 별 것 아니니 내버려 둬라. 62년생 이득이 발생할 것이니 즉시 실행함이 유익하다. 74년생 필수적인 것을 생략하려 한다면 무리가 따른다. 86년생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리라. 98년생 문제를 푸는 열쇠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8, 65

卯 39년생 과신한다면 잃는 바가 많을 것이다. 51년생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다. 63년생 사소한 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 75년생 운용 되어야 할 범위를 지나쳤을 때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87년생 대단한 일을 접하게 되리라. 99년생 일순간에 반실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33, 83

辰 40년생 방심한다면 낙오할 수밖에 없느니라. 52년생 장담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다. 64년생 탄력이 붙으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76년생 필수 사항을 누락할 수도 있으니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88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따른다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00년생 작지만 소중한 것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 19, 66

巳 41년생 반등하게 될 것이니 지켜봄도 괜찮다. 53년생 끝까지 절제된 언행을 한다면 시비수를 피해 갈 수 있다. 65년생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77년생 애지중지하여 왔던 것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89년생 잠시 숨을 돌릴 겨를이 꼭 필요하다. 01년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8, 86

午 42년생 무심코 드나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54년생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니 조처하라. 66년생 안정을 시키고 나서 모색함이 현명하다. 78년생 시야의 폭을 넓힌다면 전혀 다른 면이 보일 것이다. 90년생 협조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02년생 진력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9, 54

未 31년생 예의 주시하라. 43년생 해묵은 것들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과감하게 청산함이 합리적이다. 55년생 상당한 성과가 있다. 67년생 호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한다. 79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는 과정에 놓인다. 91년생 서두르는 것은 착오만을 야기할 뿐이니 하나부터 열까지 차분하게 진행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3, 68

申 32년생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44년생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 56년생 초기 상황에서 손을 써야만 한다. 68년생 정리 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80년생 흥망의 여부를 결정짓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92년생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머지않아 적응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80

酉 33년생 근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길성을 만난다. 45년생 지금의 판도는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57년생 여태까지 오던 길을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었다는 것을 알라. 69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화를 면하리라. 81년생 액땜을 할 수도 있느니라. 93년생 상호 보완해야만 하는 것이 산적해 있도다. 행운의 숫자 : 12, 77

戌 34년생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면 나서지 않는 것이 옳도다. 46년생 일사천리로 펼쳐질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계속하자. 58년생 순리에 따른다면 거리낄 것이 없으리라. 70년생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마당이다. 82년생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94년생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5, 78

亥 35년생 쾌거가 있다. 47년생 지금은 번거롭더라도 머지않아서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59년생 흉이 변하여 길하게 되리라. 71년생 제의한다면 상대는 흔쾌히 응할 가능성이 높다. 83년생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난하다. 95년생 성과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76